

미제에 의한 《색갈혁명》의 반동적본질과 그 교활한 수법

리 영 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편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우리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노리고 썩어빠진 반동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놓고있습니다.》

미제는 령전종식후 미국식가치관으로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흉악한 목적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비롯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과 주요전략지대에 있는 나라들에 썩어빠진 반동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 세계 도처에서 《색갈혁명》을 일으키고있다.

이 글에서는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색갈혁명》의 반동적본질과 그 교활한 수법을 폭로하려고 한다.

《색갈혁명》이란 일반적으로 미제가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친미반정부세력에 의거한 비폭력적인 《유연한 정변수법》으로 정권을 전복하고 친미반동정권을 조작해내는 침략책동의 한 형태이다. 《색갈혁명》이라는 말은 폭력에 의거하지 않고 점차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의 내부를 와해변질시켜 이색화한다는 뜻에서 나온것이다.

《색갈혁명》은 비폭력적인 유연한 정변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점에서 1968년 8월 미제가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반혁명분자들을 사촉하여 일으켰던 《비로도혁명》(《쁘라하의 봄》)과 류사하다고 볼수 있다.

《색갈혁명》은 그 무슨 새로운것이 아니라 령전시기부터 감행되어온 미제의 침략수법의 하나로서 여기에는 미국이 깊숙히 개입되어있다.

력사상 전형적인것은 석유국유화를 진행한 이란의 모사디크정권을 무너뜨린 1953년의 대중시위를 들수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CIA가 관여하였다는것은 미국대통령 오바마자신이 예킬트의 까히라에서 연설하면서 인정하였다.

령전이후시기에 들어와 《색갈혁명》은 미국식민주주의를 전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여 그 실현을 위한 미제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적극화되고있다.

《색갈혁명》은 겉보기에는 선거에서의 《불공정성》이나 경제위기로 하여 일어난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미제가 해당 나라들에서 반정부세력들을 키우고 그들을 적극 지원하고 부추기며 내정간섭하는데 근본원인이 있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악랄하게 추구하고있는 《색갈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반테로전》과 함께 세계지배를 위해 고안해 낸 《민주주의수출》수법이다.

《반테로전》이 군사적수단에 의한 미제의 《민주주의전파》수법이라면 《색갈혁명》은 비

군사적수단에 의한 《민주주의수출》수법이다.

미제는 주로 저들의 군사적공갈과 위협에 맞서 반제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색갈혁명》을 적용하여 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반정부세력을 내세워 친미정권을 조작하는 수법에 매여달렸다.

실지로 《색갈혁명》책동에 말려들어간 나라들에서는 레외없이 반정부세력들에 의해 정치적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고 나중에는 정권이 전복되는것과 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다.

미제는 《색갈혁명》을 《민주주의질서확립》의 《전형》으로 묘사하면서 그를 반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적압력과 봉쇄조치를 취하고 나중에는 《독재정치제거》의 미명하에 무력을 동원하여 군사적침략을 단행하는 날강도적인 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색갈혁명》에 여러가지 교활한 수법을 적용하고있다.

미제가 《색갈혁명》에 적용하고있는 교활한 수법은 무엇보다먼저 다른 나라 정부들을 전복하기 위한 책동에 비정부기구들을 적극 리용하고있는것이다.

미제가 비정부기구들을 《색갈혁명》에 적극 리용하는것은 《민간교류》라는 간판밑에 다른 나라의 합법적인 정권들을 전복하고 친미반동정부를 수립하려는 저들의 악랄한 침략적목적을 가리우기 위해서이다.

뉴욕에는 미국의 비정부기구본부가 자리잡고있다. 이 기구의 사명은 조선과 이란, 중국과 로씨야 등 《비민주주의국가》들에서의 반정부운동을 지지하고 그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제는 세계 각지에 있는 반정부《민주》세력들을 고무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관리기구, 반관리기구, 사영기관인 국제민주주의촉진기구를 설립하였다.

실례로 국제평화연구, 국제공화연구소, 전국민주주의연구소, 전국민주주의기금, 쏘로스기금, 열린사회연구소, 국제개발기금 등은 《색갈혁명》을 위해 복무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들이다.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은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세계의 《민주화》, 《자유화》의 전초병, 《민주화십자군》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일어나고있는 《색갈혁명》에서 커다란 역할을 놓고 있다.

미국비정부기구들은 여러 나라들에서의 《색갈혁명》의 지휘부, 두뇌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들은 친미반정부세력들의 매수와 훈련, 퇴물작전, 심리모략전, 반정부단체들의 조직, 반정부적시위와 집회의 조작과 배후조종 등을 감행하였다. 자료들에 의하면 미국비정부기구들의 재정적지원밑에 미국에서 류학, 실습한 사람들이 귀국후 본국의 정계, 상업계의 중요인물들로서 무시할수 없는 세력으로 되었다.

미국은 비정부기구들을 통하여 친미반정부세력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5년 2월 23일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오렌지혁명》에는 약 6 500만US\$가 소비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액수가 10배이상이라고 전하였다. 2005년 5월 미국대통령 부쉬가 미국의 어느 한 비정부기구의 주최밑에 열린 회의에 참가하여 《색갈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 미국정부가 40억US\$이상을 소비하였다고 말한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 정부들을 전복하기 위한 《색갈혁명》책동에 자금을 아끼지 않고있다는것을

스스로 자인한것이다. 그런가하면 미국은 2006년에만도 로씨야에 대한 이른바 《민주주의 계획》에 약 3 800만US\$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들은 모두 친미반정부세력들을 규합하여 정부전복으로 내모는데 리용되었다.

비정부기구들의 재정적지원을 받고있는 친미반동세력들은 미행정부의 《민주화전략》, 《색갈혁명》계획에 발을 맞추어 정권교체, 제도전복을 위한 반정부적행위들을 여러모로 감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의 지원밑에 육성된 수천명의 《정치가》들이 각급 정권기관들에 들어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미국식《민주주의》의 도입을 위해 적극 활약하였다.

하기에 중국잡지 《세계지식》은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이 반정부세력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색갈혁명〉을 추진하고있다.》고 하였으며 일본잡지 《세카이슈호》는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끼르기즈스탄 등 이전 소련가맹공화국들에서 일어난 일련의 〈색갈혁명〉은 비정부기구들의 지원으로 달성되었으며 앞으로 벨라루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로씨야에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끼르기즈스탄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정부는 끼르기즈스탄에서 비정부기구들을 통하여 반정부세력들에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US\$를 뿌려 마침내 정부를 거꾸러뜨리었다.》라고 실토하였다.

비정부기구들을 리용하여 미제가 감행한 《색갈혁명》으로는 그루지야에서의 《장미혁명》, 우크라이나에서의 《오렌지혁명》, 끼르기즈스탄에서의 《튤립혁명》(레몬혁명), 로씨야에서의 《붓나무혁명》, 벨라루씨에서의 《하늘색혁명》,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제비꽃혁명》, 레바논에서의 《갓나무혁명》 등을 들수 있다.

미제가 《색갈혁명》에 적용하고있는 교활한 수법은 다음으로 해당 나라의 정객들과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요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벌려 그들을 반정부세력의 지지기반으로 만드는것이다.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은 막대한 군사적부담을 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반미적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교활한 수법이며 동시에 매개 나라의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사상적으로 와해시켜 친미세력으로 만듦으로써 정권전복은 물론 전망적으로 이 나라들을 틀어쥐는데서 그들을 써먹으려는 음흉하고도 교활한 수법이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은 반동적이고 썩어빠진 부르조아사상문화와 생활방식, 풍조를 다른 나라들에 류포시켜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며 사람들속에 해당 나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정부적감정을 조성시켜 정부전복에 나서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오늘날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의 주되는 대상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새 세대 청소년들이다.

미제는 우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인 청소년들을 반정부세력의 골간, 지지기반으로 육성하는데 힘을 넣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전 소련지역나라들에서 미제의 비정부기구들의 《원조》밑에 미국에서 류학, 실습한 9만명의 대학생들이 귀국후 본국의 정계, 상업계의 중요한물들로 되어 홀시할수 없는 세력으로 되었다.

미제는 비정부기구들을 통하여 쓰르비아에 《색갈혁명》양성소를 설치하고 이전 소련가맹 공화국들의 일부 청년들을 《색갈혁명》력량으로 키웠는가 하면 각종 청년학자교류계획에 따라 미국에 와서 류학, 실습을 하는 청년들을 매수하여 그들을 핵심으로 《저항》, 《뿌라》와 같은 반정부청년조직들을 결성하였다.

미제는 2000년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셰비츠정권을 뒤집어엎는데서 반정부청년조직인 《저항》이 적극적인 활동을 한것을 통하여 새로운 사조에 물들기 쉬운 청년들을 반정부세력의 지지기반으로 키우는것이 저들의 《전세계적인 자유확대》실현에 절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미제는 또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책동을 벌림으로써 해당 나라 청소년들을 부패타락시키고 미국식가치관을 부식시켜 반정부운동에 나서게 하였다.

부쉬행정부는 국무성에 공공외교담당 부장관직제까지 새로 내오고 그 자리에 집권1기 때의 측근보좌관인 카렌 휴즈를 임명하였으며 방송으로부터 녹거리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청년들에 대한 선전공세를 벌리었다. 카렌 휴즈의 지휘에 따라 미국무성은 《공공외교》라는 간판밑에 연간 420만US\$의 자금을 내어 18~35살의 이슬람교도청년들을 독자대상으로 하는 《비정치적이고 이슬람교맛》이 나는 잡지 《하이(안녕하십니까)》를 발간하여 2003년 7월부터 예질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15개 아랍나라들에 대대적으로 돌이밀고있다.

또한 특별주문으로 미국에서 살고있는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기록영화를 제작하여 중근동지역을 대상으로 방영하도록 하였다.

부쉬행정부는 수십년동안 이슬람교나라 상류계층의 정치적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편집하던 방송, 출판물들의 내용을 아랍중근동인구의 65%를 차지하는 30대미만의 청년들을 기본대상으로 할수 있게 내용을 바꾸어 편집하도록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은 정보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현대적인 정보통신수단들까지 총동원하여 악랄하고 집요하게 감행되고있다. 미제는 《비디오클럽》과 같은 TV위성통로까지 개설하여 색정적인 영화와 노래들을 소개, 방영하고 가정과 상업봉사망들, 승용차와 개인들속에서 쉽게 리용할수 있는 음악CD판들과 기억매체들을 대량적으로 제작류포시키고있다.

미제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에 의하여 적지 않은 청년들이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자기 정부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그루지야의 《장미혁명》(2003년 11월)에서는 반정부청년조직인 《저항》이,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2004년 10월)에서는 반정부청년조직인 《저항》과 《뿌라》가 반정부세력의 적극적인 지지자, 추종자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2005년 1월 로씨야의 신크프-뻬제르부르그에서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의 지원밑에 《저항》조직의 본을 딴 《뿌찐을 몰아내자》의 구호를 든 청년조직이 결성되었으며 이들은 로씨야에서의 복지개혁을 반대하여 일어났던 반정부시위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최근년간에 일어난 《중동사태》(일명 《아랍의 봄》)에서도 미제의 책동에 의하여 청년들이 반정부운동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미제가 《아랍의 봄》이 도래했다고 미화분식하는 《중동사태》는 미제의 《색갈혁명》책동

에 의해 조성된 중근동나라들에서의 정부전복과 파국적인 정치경제적 혼란상태를 말한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반정부운동인 《자스민혁명》이 일어나자 이 소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하루밤사이에 전 아랍세계에 전파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에집트에서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트위터혁명》이라고 불리운 반정부운동을 일으켰다. 뒤이어 중근동의 여러 나라들에서 반정부시위들이 일어났으며 거기에 청년들이 적극 참가하였다. 결국 튀니지, 에집트, 리비아, 예멘 등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단 며칠사이에 정권이 전복되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색갈혁명》으로 정치군사적 동란과 사상최대의 피난민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있다.

때문에 정치분석가들은 오늘날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세를 놓고 《아랍의 봄》이 《아랍의 겨울》로 바뀌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미제가 《색갈혁명》에 적용하고있는 교활한 수법은 다음으로 해당 나라의 군부를 매수하여 반정부운동이 일어날 때 그들이 《중립》을 표방하면서 정부전복을 막아나서지 못하도록 하는것이다.

이것은 저들의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해당 나라의 군사력을 무력화하여 침략적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려는 미제의 교활한 침략수법의 하나이다.

실례로 미제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계기로 이전 소련지역의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 군사기지들을 개설, 리용하게 된 공간을 리용하여 군상충부인물들에게 수천만US\$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정치적동란이 일어나는 경우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면 본인 및 가족들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정권의 《평화적교체》를 실현하려고 책동하였다. 때문에 서방의 보도매체들까지도 그루지야의 《장미혁명》,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끼르기즈스탄의 《튤립혁명》 등의 《평화적인 성공》이 이 나라들의 군대가 《혁명》 당시 《중립》을 표방하였기때문이라고 평하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수법을 최근년간 리비아와 예멘 등 아랍중근동나라들에도 적용하였다.

이처럼 비정부기구들을 통한 반정부세력의 양성,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통한 내부와해, 군부상층매수를 통한 군대의 《중립화》는 미제의 《색갈혁명》책동의 주요수법으로 되고있으며 《색갈혁명》의 주되는 대상은 바로 반미자주적지향이 강한 나라들이다.

오늘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썬들은 주체의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압박과 전쟁소동,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심한 경제제재와 함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에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2015년초에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을 통한 정보류입으로 반드시 붕괴시킬것이라고 떠벌인것은 미제가 중동에서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색갈혁명》을 일으키려고 획책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선군조선의 위력,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나갈것이다.

실마리어 《색갈혁명》, 사상문화적침투